

# 포천시 제82회 어린이 날 행사 '풍성'



제82회 어린이날을 맞아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어린이날 행사가 포천시에서 마련됐다.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포천시 종합운동장에서는 다양한 볼거리와 놀이 마당으로 꾸며진 제2회 포천시 어린이날 큰 잔치가 펼쳐졌다.

먼저 모범어린이 시상 등으로 진행되는 기념식 후, 축하행사로 ▷군악대퍼레이드와 ▷특공연대무술시범 ▷댄스스포츠 등이 펼쳐진다. 이어 "음식물쓰레기줍기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리며, ▷은 가족이 함께 하는 레크리에이션과 ▷

가수, 가족댄스, 퀴즈, 가족사진 "짱" 선발대회, ▷문자 빨리 보내기 대회 등의 축제 한마당이 진행 된다.

이 밖에 이동임체 영화관이 운영되며 미니 스포츠게임도 열렸다.

한편 포천반월아트홀에서도 다양한 어린이날 공연이 펼쳐졌다.

5일 오후 4시와 7시에는 정성모의 미술콘서트가 아트홀 대극장에서 무료로 개최돼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도 했다.

또 하루 앞선 4일 오후 7시에는 포천시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작은 평화예술단의 "동요콘서트"가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애창동요와 창작동요 공연 외에 실내악과 댄스, 여성중창, 사운드오브 뮤직 하이라이트, 다함께 동요부르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돼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았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el.net

# 경북대 환경동아리 '맑은세상' 산정호수에서 환경봉사활동 펼쳐



"우리의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 줍시다"

어린이날인 5일 경북대학(화장 이보령)의 환경동아리 '맑은세상'이 산정호수 일원에서 환경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관식(산업디자인과) 지도교수의 인솔로 산업디자인과 이현직 회장을 비롯한 7개학과 45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환경보호 캠페인과 등산로입구부터 정상까지 쓰레기수거 및 유

원지 주변의 환경미화 활동을 실시했다.

'맑은세상'은 올해 4월 결성돼 현재 6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환경 동아리로써 인간에 의해 파괴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환경보호 캠페인과 새로운 환경아이디어의 제안, 전국속지역 탐방 및 유해환경요소의 발굴 등 대학생으로서 국내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등 정



소규모학교지원사업발표회 변진수 포천교육장은 7일 유암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소규모학교지원사업발표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어린이명찰달아주기 캠페인 최원일 경찰서장은 5일 산정호수에서 미아방지를 위한 어린이 명찰달아주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군내과견소 개소식 이대열 포천소방서장은 4일 군내과견소 개소식에 참석해 유사시 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다.



포천현대미술제 참석 김진동 한국예총포천지부장은 1일 포천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열린 '2004 포천현대미술제' 참석해 작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경기도협회이사회 이병일 바르게살기포천시협의회장은 7일 바르게살기경기도협의회 이사회에 참석해 협의회 활성화 방안 및 상반기 업무에 대해 협의했다.



경로잔치 참석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은 8일 오전 어버이날을 맞아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왕산사 주최 경로잔치에 참석해 노인들을 위로했다.



어린이날행사 정리 김제현 포천모범안전지회는 5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어린이날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병을 정리하고 교통을 통제했다.



복지시설 방문봉사 김집수 포천터러블협회장은 24일 포천고 인턴트러블협회 회원 50명과 함께 '노아아집' 등 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안보간담회 참석 이광호 포천시재향군인회장은 7일 안보단체장들과 6군단 기무부대장 초청으로 기무부대에서 안보현실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캐네이션달아주기 봉사 윤순옥 포천시제21실천협의회는 7일 회원들과 함께 관내 노인대상 복지시설들을 순회하며 노인들에게 캐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봉사를 펼쳤다.

## 우리 동네 포커스

### 포천소방서 최원근 소방교

## "필요한 곳에서 성실하게 봉사"



원근 소방교(사진.45). 최 소방교는 관인에서 사진관을 경영하다가 6살난 아들이 뇌종양으로 투병생활중 의뢰비가 너무 많이 나와 의료보험증을 만들기 위해 지나 87년 소방관으로 임용하게 되었다.

결국 아들은 유명을 달리하고 부인과 이혼 후 현재까지 충실하게 업무수행하면서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해 관내 행사 사진을 찍게 된 것이다.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1가정 1소화기 운동을 벌여 관인에는 각 가정마다 소화기 1대씩은 비치돼 있다.

또 최 소방교는 노인분들의 영정사진을 10년단위로 봉사한다. 이렇게 하여 봉사활동이나

행사사진을 관인의소대 사이트에 게재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최 소방교는 매년 한탄강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직접 개인이 준비한 장비를 들고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익사 전이면 인명을 구하고 익사 후에는 시체를 찾아낸다.

관내 산악사고에도 최 소방교의 역할은 빠지지 않는다. 종자산과 지장산, 관인봉등에서 발생하는 실종사고등에 민첩하게 대응하곤 한다.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성실하게 봉사하자"라는 생활신조로 늘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는 최 소방교의 일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el.net

## 작은거인 산악회 5주년 기념행사



▲청와대 관람과 북한산 등반행사

가칭 포천산악회 창립 5주년과 작은거인산악회(회장 이문용) 명명 1주년 기념으로 청와대 관람과 북한산 등반행사가 지난 1일과 8일에 실시됐다.

지난 1일에는 230명이 참가했고 8일에는 230명이 참가해 청와대를 관람하고 북한산 등반코스에 나선 것이다. 작은거인산악회는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등산에 나서고 있다.

## "할머니, 시원하시죠"

### 포천자혜의집 온천 나들이 나서 봉사자들과 함께 담소 나누며 식사도



"상큼한 봄 기운 맡겠 느껴요." 화창한 날씨의 4일, 노인복지시설 자혜의 집(원장 최영식) 노인들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설레는 마음을 안고 봄나들이에 나섰다.

자혜의 집에 수용된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해 이동이 힘든 분들로서 특히 추운 날씨로 인해 외출을 삼가오던 터라 더욱 반가운 나들이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이날 나들이에는 노인 30명 외에도 범죄예방위원회 포천시지부와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속 자원봉사자 20여명이 함께 참여해 친밀한 유대관계를 쌓았다.

먼저 일동면에 위치한 '일동짜이판'에 들러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온천욕을 하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무릎을 씻겨낸 노인들은 이동면의 '우목정'으로 이동했다.

연두빛이 싱그러운 야외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먹기 알맞게 잘라 놓은 부드러운 육질의 고기를 먹으며 자원봉사자들과 이런 저런 담소를 나누는 노인들의 모습에서는 편안한 미소가 오래 머물렀다.

최영식 원장은 "어르신들이 시설에만 계시니 많이 답답해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보니 많이 좋아하셨다"라며 "오늘 이 행사를 치를 수 있게 해 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자혜의 집 함영순(71) 할머니는 "봉사하는 분들이 하루 종일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며 "자주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포천자혜원은 2000년 3월 포천 가산면에 개원했으며 현재 양로원과 요양원 두 곳으로 나눠 운영 중에 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라

문)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양주시에 사는 김부자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김부자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송되었다. 김부자씨가 깜짝 놀라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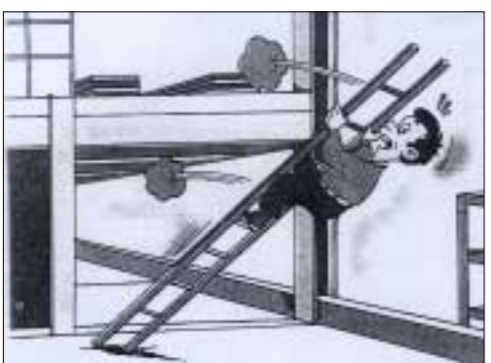
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 이와 같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단, 재산분할 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12.31이전 증여분은 5억원, 이하 같음)을 공제하고 나머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제공: 의정부 세무서 031) 870-4252

## 산업안전사고 예방

### 사다리가 전도되어 추락



단은 설치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이상 올라가도록 여장길이를 확보하여야 하나 미확보되었기 때문이다. 동종 재해 예방대책으로 이동식 사다리 설치 기준 준수를 들 수 있다. 사다리식 가설

2003년 8월 경기도 소재 O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건물 상층부로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중 사다리가 전도되어 약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다.

재해발생원인은 이동식 사다리 설치 불량으로 사다리식 가설봉료를 설치하는 때에는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하여 구조물 등에 고정설치하여야 하나 미실시하였고 사다리의 상

봉료를 설치하는 때에는 사다리의 전도방지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조치 및 구조물(철골보 등)에 고정설치하는 등 전도방지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이상 올라가도록 여장길이를 확보하여 근로자가 걸쳐 놓은 지점에서 사다리 상단을 잡고 승·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

## 영북면 경로잔치 성황



영북면 유관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2004 영북노인사랑 경로잔치를 열어 경로사상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영북면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잔치에서 유관단체 협의회원들은 노인분들에게 큰잔치 예를 갖추고 민수무강을 기원했다.

이날 영북면 경로잔치는 유관단체협의회원중에서도 한화콘도와 산정호수 골프장, 영북농협등이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영북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이 나와 노인분들을 안내하기도 해 호사상 실현에 나서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el.net

## 교환안내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포천시는 교환안내서비스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10일부터 오는 6월9일까지 1개월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교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욕구충족 및 포천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통합마케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7개항의 설문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번 조사에는 시의 현재 교환안내멘트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청입니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시청에 전화했을 때 가장 불편했던 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시의 교환안내서비스 개선시 참고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받아 적극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el.net

## 아파트에 꽃핀 '화합과 효심'

### 원일산호3차 7일 경로잔치 펼쳐 주민과 노인이 어우러진 화합의 장

원일산호 3차 아파트(회장 라재호)가 지난 7일 단지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훈훈한 정을 나누는 경로잔치를 개최해 미담이 되고 있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당겨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주민들과 노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녀회에서 마련한 각종 음식과 다과를 즐겼다.

김동운 동대표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주민들에게는 화합과 우정을, 노인들에게는 공경심과 효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더욱 알찬 잔치를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정병갑 기자 jpk61@hanmir.com